

##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초의 한국어 교원 김병옥(1874~?): 어제와 오늘

---

세르게이 올레고비치 쿠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페테르부르크국립대 한국어문화센터는 소련 최초의 한국어 문법 연구자 홀로도비치의 제자인 언어학자 바실리에프가 세웠으며, 1997년에 이 곳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한국어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바실리에프는 학술회의 자료집에 동료인 라치코프 조교수와 함께 페테르부르크대 한국어 교육사를 간략히 소개했다. 여기에는 조선 공사관의 통역관이자 아타셰인 김병옥이 1897년부터 페테르부르크대 동양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짧은 문구만 실렸다. 더군다나 김병옥의 성격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나는 조선의 페테르부르크 주재 최초 조선 공사관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주소기록부인 '베시 페테르부르크'에 1899년부터 김병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898년 김병옥이 등록한 첫 주소지는 그가 1902년까지 살았던 알렉산드롭스카야 가(현재 도브로류보프 가) 21번지이다. 1917년 혁명 전까지 김병옥은 주소를 아홉 차례 바꿨다. 주로 대학교 부근에서 살았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지는 바실리에프 오스트로프 5번 라인 66번지로, 여기에서 1917년 무렵까지 살았다. 흥미롭게도, 지금은 이 곳에 페테르부르크대학교 학생 기숙사가 자리잡고 있다.

나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김병옥이 페테르부르크로 오기 전에 고종(1863~1907년 재위) 왕실에서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는 김병옥에 대한 고문헌 자료가 남아있다.

러시아어와 불어로 발행된 «외교연감»의 러시아어본에는 1898~1900년과 1900~1901년에 김병옥이 조선 공사 사절단에 통역관으로 소속되어 있고, 1900년까지 조선 공사의 공식적인 수장은 민영환이라는 기록이 있다. 1898~1900년에 조선 공관의 상설 주소지가 없었다. 이범진 공사가 부임한 후 김병옥은 조선 공사관에서 일 년 남짓

일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관을 떠난 이후, 한국에 강의에 전념했다.

러시아연방국립역사기록원(모스크바)에 러시아 제국의 비밀경찰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1904~1905년 조선 공사 직원들에 대해 비밀요원들이 사찰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중에 김병옥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바로 이 기록물에서 페테르부르크대 최초의 조선어 교수의 출생년도를 알 수 있었다. "(1904년) 4월 19일 나제쭈다 김은 오후 1시에 아들, 부모, 페테르부르크대 교수인 조선인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김병옥, 30세)과 함께 집에서 나와... 고스티니 드보르로 향했다가 파사쉬로 갔지만, 가게에 들르지는 않고, 귀가했다... 예브게니 김은 사찰 대상인 집에서 나와... 불샤야 모네트나야 가 3번지로 갔다. 이 곳 8호에서 그는 아내인 마리아 마트베예바(30세), 최하급 관리의 딸 베라 마트베예바 코르구진스카야(37세, 마리아 김의 자매로 추측)와 함께 살았다."

비밀경찰 요원의 기록에 따르면, 김병옥은 1874년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가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한국어를 강의하기 시작한 때에 겨우 23살이었다는 셈이다.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라는 러시아 이름과 러시아인 아내는 어떻게 된 것일까? 실제로 1905년 '베시 페테르부르크'에 김병옥의 한국어 이름과 함께 처음으로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실렸고, 아내인 마리아 마트베예브나 기록되었다. 1904년에 김병옥이 결혼해서 교회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니, 분명 러시아정교 세례를 받으며 러시아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이상할 것도 전혀 없다. 이범진 특사의 아들인 이위종 역시 러시아인과 결혼하여 블라지미르 세르게예비치라는 러시아 이름을 사용했다.

공문서에서 우리는 김병옥이 조선인 동포 대표자들과 외교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유지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김병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러시아에서 보도된 1904년 신문에서 김병옥의 인터뷰를 발견했는데, 이 기사에 그 당시 '한국학'에 대한 평가가 담겼고, 20세기 초 러시아 언론에 등장한 조선 지명이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는 러시아 신문을 보며 전쟁의 전개 상황을 주시한다. 군대의 움직임을 지도에서 집요하게 확인하는데, 세상에! 이러면서 안도감이 든다. 전투나 어떤 군대 이동이 일어나는 여러 지명이 전신으로 전달되면서 바뀌다보니, 거기가 어딘지 곧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튜렌첸'만 하더라도 이런 이름은 중국어에도, 한국어에도 없다. 누가 이런 이름을 생각해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김병옥은 인터뷰에서 러일전쟁을 언급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책을 맹렬히 비판한다. 동시에 그는 한국에서 지낸 지난 날을 회고한다. «오랫동안 나는 황제의 최측근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들의 성향이나 일본에 대한 태도도 잘 알고 있다.» 이렇듯 김병옥은 오랫동안 고종 황실에서 일했다. 이것은 1924년 '아시아통보'에 기술된 바와 같이, 김병옥이 프리아무르주 출신의 고려인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김병옥은 일본에 대해 사실 조선인들은 한 때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라는 기치를 믿고, 일본인들 편에 서고 싶었지만, 사실상 그 기치가 '일본인들을 위한 아시아'로 드러나자 조선인들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간의 일본인들 행동을 알게 되고 우린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김병옥은 밝혔다.

페테르부르크 신문 기자가 김병옥에게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형적인 조선인으로 교양 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이며, 중요한 점은 그가 극동지역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김병옥은 러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러시아가 전승국이 되고, 우리 조국을 보호해주리라 확신한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조선인들이 이를 원한다. 내가 러시아에 온 손님이라서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요, 간절한 바람이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막을 내렸다. 러시아는 패전국이 되었다. 1905년에 조선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는 식민지가 되었다. 1917년 10월 혁명은 페테르부르크대학도 뒤흔들어놓았다. 우리는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김병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80년 가까이 그를 잊고 지냈다.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러시아 제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은 조선의 말과 문화를 가르쳐준 조선의 아들, 비단 김병옥뿐일까? 그의 뒤를 이어 다른 한인들, 즉 소련의 고려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페테르부르크대에서 강의를 했다. 임영숙, 강승민, 조재호, 최양순, 정양옥. 이들은 다양한 삶의 궤적들을 걸어온 살아있는 인물들이다. 정양옥 교수는 2002년부터 페테르부르크대에서 일하면서 한국어 회화와 한국 전통무용까지 강의하고 있다.